

하늘을 보며



김 동 완
문화방송 보도위원

“올려다보고 일하고 내려다보며 살라”는 말이 있다. 정말로 지나온 30년 세월을 늘 하늘을 우러러보며 일하고 땅을 굽어보고 이야기하며 살아왔다. 이것은 모든 기상인의 숙명이기도 하다. 맑은 하늘에서 폭풍우의 씨앗을 찾아야하고 먹구름 뒤에서 쾌청한 날씨를 예보해야하는 마술사, 거짓말의 챔피언이 김아무개라는 개그맨의 웃음 속에 기상인의 애환이 스며있다.

가랑비가 소리없이 내리는 어느 날 아침이었다. 나는 평상시와 같이 새벽 4시에 잠자리에서 일어나 중앙기상대에 들러 밤새 변화한 날씨를 점검하고 기상대

당직 예보관과 앞으로의 날씨 전망에 관해 의견을 나눈 뒤 방송국으로 돌아와 아침방송 준비를 끝내고 방송시간을 기다렸다. 마침내 일기해설시각이 다가와 뉴스 앵커로부터 지금 밖에는 가랑비가 내리고 있는데 우산을 가지고 출근을 해야되겠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당시 우리나라 부근의 기압배치상으로 비는 곧 그칠 것으로 예측됐을 뿐만 아니라 비가 내리는 지역도 아주 적어 일시적이고 국지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비가 약간 온 뒤 곧 그치겠으므로 “오늘아침 출근할 때 우산을 준비하지 않아도 좋

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구름사진 설명으로부터 시작해 일기도 해설과 전국 날씨를 유창한 말솜씨(?)로 방송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방송을 마치고 사무실에 돌아와 창밖을 내다보니 소나기 구름이 서쪽하늘로부터 몰려오고 있지 않는가!! “아! 예보가 빗나가는구나.”하는 생각이 나의 머리를 스치는 순간 파아-하고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책상위의 전화가 요란스럽게 울렸다. ‘네-’하고 수화기를 드는 순간 전화기에서는 “뭐 우산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고”하는 고함소리가 나의 고막을 때렸다. 나는 하늘아래서 가장 큰 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연발할 수 밖에 없었다.

이 날 소나기는 서울을 비롯한 경기일부지방에 30분 정도, 그야말로 국지적으로 한때 내렸지만, 나는 온 몸의 힘이 완전히 탈진되고 정신나간 사람처럼 금방 다시 갠 파란 하늘만 원망스럽게 쳐다 볼 수 밖에 없었다.

현대과학의 발달로 예보적중률이 80%를 웃돌고 있으나 유한인생 무한욕망(有限人生, 無限慾望)

의 인간속성이 늘 일기예보의 틀린 것만을 지적하게 되는가 보다.

인간은 불완전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만은 완전을 요구한다.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자기의 무지를 탓하기에 앞서 상대방의 무식을, 한걸음 나아가서 “안다고 거드름 피운다”는 억지를 쓰는 자기 모순을 드러낸다.

가뭄이 오면 농촌에서는 물걱정, 폭풍우가 몰아치면 어촌에서는 흄어걱정, 강물이 넘치면 도시에서는 집걱정을 하는데 기상인(특히 예보관)은 하늘을 보며 번덕스러운 날씨를 쫓느라 처자식 걱정할 틈도 없다. 즐거운 주말이나, 풍요로운 가을, 어부의 바빠진 일손……. 이런 때 한 순간 만이라도 정확한 날씨예보를 발표한 예보관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단 하루를 보내면서도 몇 번이고 주위 환경의 변화가 있는가 하면 우리들의 마음도 여러번 흐렸다 개었다하기 마련이다.

이와같이 흐렸다 개었다하는 변화의 흐름을 타고 하루가 즐겁게 마무리되기도 하고 뜻하지 않게 사고를 당하기도 한다. 불의의 사고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조그마한 부주의에 따른 방식이 그 원인인 것이 대부분이다.

우리는 흔히들 우울한 기분에서 사로잡힌 사람을 보고 “아 이 사람 왜 저기압일까?”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기압이 낮고 습도가 높은 날씨에서는 사고력이 떨어져 우울해지기 쉽다.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기능의 능률도 떨어져 이를테면 어떤 상황을 감지하

고 그것에 대한 대처를 하는데 몸의 움직임이 둔해진다. 따라서 기압이 낮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을 때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인 반사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의 효율이 떨어지고 교통사고와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날씨가 기울 때에는 보통 때보다 마음가짐이나 몸가짐에 조심하고 안전사고예방에 유의해야 한다.

이와같이 기상요소 중에 기압이 날씨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그렇지만 기온이나 바람도 무시할 수 없는 기상요소이다. 공기가 움직이고 있는 상태를 바람이라고 한다. 바람의 세기는 1초 동안에 공기가 이동해간 거리로 나타낸다. 또한 풍향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말하는데 바람이 북쪽에서 불어오면 북풍이라 하고, 남쪽에서 불어오면 남풍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바람은 아침에는 약하고 오후에는 강하다. 그리고 낮에는 바다에서 육지로, 밤에는 육지에서 바다쪽으로 바람이 분다. 이것을 해풍과 육풍이라 한다.

또 산악지방에서는 낮에는 산골짜기에서 산봉우리를 향해, 밤에는 산봉우리로 부터 산골짜기를 따라 바람이 분다. 산에서 불어내리는 습도가 낮고 온도가 높은 바람을 켄(Föhn 뉘새바람)이라 한다.

켄은 원래 유럽의 알프스산맥 북쪽 지방에 나타나는 바람에 대한 그 지방 고유의 이름인데 오

늘날엔 산맥을 넘어 불어내려오는 건조하고 더운 바람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이름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관령을 사이에 두고 영서지방과 영동지방에서 켄현상이 자주 나타난다. 켄현상이 나타날 때는 습도가 낮고 온도는 높은 바람 즉 대단히 매마르고 더운 바람이 불게됨으로써 모든 물체의 건조도가 높아져 모든 것이 바싹 마른 상태에 놓이게 되어 불이 나기 쉽고 일단 불이 나면 삽시간에 큰 불로 번지게 된다.

켄현상은 풍하측에서 나타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서풍계통의 바람(서풍, 남서풍, 북서풍)이 불면 영동지방과 영남지방에서 잘 나타나고, 동풍계통의 바람(동풍, 남동풍, 북동풍)이 불면 서울지방을 비롯한 영서지방과 호남지방에서 잘 나타나게 된다. 이와같은 켄현상은 바람이 불어오는 거리가 길면 갈수록 또 풍속이 강하면 강할수록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와같은 자연의 변화 특히 날씨변화는 변화무쌍한 것이어서 예나 지금이나 관심도 많고 흥미롭기도 한 것이었다.

일찌기 세종대왕께서 측우기를 만들게 한 것을 비롯해 우리 조상들은 날씨관측에 탁월한 관심과 지혜를 갖고 있었다.

오늘날 기상인들은 이와같은 조상님들의 후예답게 끈기있고 차분한 마음으로 하늘을 우러러 보며 맑은 일에 최선을 다함 따름이다. ☀